

# 짧은 유학생활을 돌아보면서

류미리 (한국, 동덕여자대학교)

저는 4 월부터 교환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4 월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 1. 학교생활

저는 지금 전공 수업과 유학생 수업 모두 포함해서 11 개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유학생 수업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일본의 여러 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어와 일본문화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좀 더 편한 생활을 보내기 위한 노하우 전반을 다른 유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 경우, 전공수업은 일본고전문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업이 어려워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유학생인 저 혼자로서는 넘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해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대학원생 튜터분에게 상담하면서 튜터분과 함께 이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고전 문학 지식 뿐만 아니라 협동력까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2. 기숙사생활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가족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 요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식사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귀찮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사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대욕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역시 규칙이 있는 편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원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나 유학생과 부엌에서 만나 얘기하거나 로비에서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쓴 가게 정보를 공유하며 같이 가 보기도 하고 기숙사 안에서 다 함께 모국의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등의 다양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아직 몇 개월밖에 안 되었습시다만 기뻐던 일, 슬펐던 일 등등 다양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반년정도는 여기에서 생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본인들, 다른 유학생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가면서 즐거운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